

가톨릭대 2018학년도 인문 3번

✎ (가)와 (나)의 인격 함양에 대한 관점을 비교하고, 이를 활용하여 (다)의 '㉠학생 봉사활동'에 대해 논술하시오. (500~600자 / 40점)

(가)

사람의 본성은 악한데 그 선한 모습은 인위적으로 그렇게 만든 것이다. 인제 사람의 본성을 살펴보면, 타고난 때부터 이익을 좋아하는 성질이 있다. 이 성질을 따르기 때문에 쟁탈이 발생하고 사양하는 마음이 없다. 또한 사람의 본성에는 태어날 때부터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 이 성질을 따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해치는 일이 발생하고 충성과 믿음이 없다. 또, 태어날 때부터 육체적인 욕망을 가지고 있어서 아름다운 소리와 아름다운 색을 좋아한다. 이 성질을 따르기 때문에 음란한 마음이 생기고 예의와 규칙이 없다. 그러므로 사람이 타고난 본성을 따르고 사람의 감정에 순응하면 반드시 쟁탈이 일어나고, 신분 질서를 해치고, 이치를 어지럽혀서 포악한 사회로 돌아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스승과 법도에 의한 교화, 예의에 의한 인도가 있어야 한다. 그런 다음에 사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회 규범과 합치되어 잘 다스려진 사회로 돌아갈 것이다. 이것을 통해 본다면 사람의 본성이 악한 것은 분명하다. 사람이 선한 모습을 갖는 것은 인위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다.

- 『순자(荀子)』

(나)

조교(曹交)가 물었다.

“사람이 다 요순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과연 그게 사실입니까?”

맹자가 대답했다.

“그렇소.”

조교가 물었다.

“제가 듣기로 문왕은 키가 10척(尺)이고 탕은 9척이라고 하는데, 지금 저는 9척 4촌(寸)이 되지만 곡식만 축내고 있을 뿐이니 어찌하면 좋습니까?”

맹자가 말했다.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소? 단지 실천하고자 하면 되는 것이오. 여기 어떤 사람이 오리 한 마리도 들 수

없다면 그는 무력인(無力人)이 될 것이요, 그러나 만일 백균(百鈞)*을 든다면 그는 역인(力人)이 될 것이요, 오획(烏獲)*이 들던 무게를 든다면 이는 또한 오획과 같은 사람이 될 것이요, 사람들은 어찌하여 감당하지 못할까 미리 걱정하는 것이요, 스스로 그리하지 않으려는 것에 불과할 뿐이요, 서행하여 장자(長者)보다 뒤에 가는 것을 공경함, 빨리 걸어 장자보다 앞서 가는 것을 불공함이라고 하오, 무릇 '서행'이 어찌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겠소? 단지 하지 않는 것일 뿐이요, 요순지도(堯舜之道)는 효제(孝悌)*일 뿐이요, 그대가 요와 같은 옷을 입고, 요의 말을 하고, 요의 행실을 하면 바로 요가 되오, 그러나 겐(桀)*의 옷을 입고, 겐의 말을 하고, 겐의 행실을 행하면 바로 겐이 되는 것이요.”

- 『맹자(孟子)』

* 백균: 3,000근

* 오획: 진나라 때의 역사. 힘이 센 사람을 이름

* 요순지도는 효제: 요순의 도는 부모에 대한 효도와 형제에 대한 우애

* 겐: 중국 하나라의 마지막 왕. 은나라의 주왕과 나란히 중국 상고시대의 폭군으로 대표됨

(다)

청소년들의 봉사활동은 지난 1996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었다. 당시 초·중·고교에서 교과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소홀해진 인성교육을 보완하는 데에 ㉠학생 봉사활동이 도움이 된다는 교육부가 도입했다. 이후 학생 봉사활동은 2000년 제7차 교육과정 특별활동 영역에 포함되어 교육의 한 영역으로 정착됐다. 그러나 요즘 청소년 사이에서 봉사활동은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데 필요한 점수 따기 용으로 인식되고 있다.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보다는 필요에 따라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일보, 2014. 06. 07., 학생기자

나란히 걷기

논제
분석

독해
정리

논리
평면

표준
전개

- ✎ (가)와 (나)의 인격 함양에 대한 관점을 비교하고, 이를 활용하여 (다)의 '㉠학생 봉사활동'에 대해 논술하시오. (500~600자 / 40점)

[논제분석]

- ✎ (가)와 (나)를 비교하고, 이를 활용하여 (다)에 대해 논술하시오.

비교를 시키고, 그 다음에 이를 활용해서 다른 대상에 대해 논하라고 했어. 무엇을 시켜보려는 의도일까? 비교를 먼저 시킨 이유는 뭘까? 두 개의 대상을 비교했는데, 그럼 둘 무엇을 기준으로 (다)에 대해 논해야 할까? 이런 부분들에 열심히 고민해 봐야겠지? 이런 걸 미리 고민해 보는 게 실전을 준비하는 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야. 학교가 어떤 식으로 물어볼 수 있고, 그에 따라 어떻게 답변하는 게 좋을지 미리 고민하고 정리해 보는 게 가장 훌륭한 대비가 되는 거니까. :)

일단, 비교를 시켰으니까 비교를 해야 되겠지. 그러면 '이를 활용하여'의 '이'는 무엇일까? 비교의 결과야. 비교의 결과로서 정리된 내용을 (다)에 대해 판단하는 기준(이론)으로 사용하라는 거야. 논제가 여러 부분으로 쪼개져 있어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건, 결국 '하나의 완성된 유기적인 글'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야. 각 요구사항들을 모두 연결해서 하나의 흐름을 만들어야 해. 그래서 우리의 글은 하나의 '비문학 제시문'처럼 보여야 해. 그게 최고의 경지야.

[독해]

- (가) 순자 - 인간의 본성은 악하지만, 스승과 법도의 인도에 따라 선하게 될 수 있다.
(나) 맹자 - 사람은 실천하고자 마음을 먹고 노력하면 극진한 선함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
(다) 봉사활동은 인성교육 보완을 위해 도입되었으나 진학을 위한 수단으로만 인식되고 있다.

[논리평면] 비교, 종합(사실추론)

공통점	인격은 후천적으로 훌륭해질 수 있음	(분량 조건을 고려해 간략하게만 비교!)
차이점	인격 수양의 방법	
(가)	교육과 법도를 통한 인도	
(나)	각 개인의 마음가짐과 노력	

	전제	결론
(가)	인간의 본성은 본디 악하지만,	스승과 법도의 인도를 통해 선행될 수 있음
(다)	봉사활동을 진학을 위한 수단으로만 활용	봉사 관련 교육을 통해 본연의 목적 달성 가능

	전제	결론
(나)	사람은 마음 먹고 노력하면	누구나 훌륭한 인격을 갖출 수 있음
(다)	학생들이 진정한 봉사를 위해 노력한다면	훌륭한 봉사자가 될 수 있음

[예시답안] 549자

제시문 (가)와 (나)는 순자와 맹자를 통해 사람의 인성은 후천적으로 훌륭해질 수 있다고 말한다. 다만, 각자가 말하는 후천적 수단에는 차이도 나타나고 있다. 먼저 (가)의 순자는 교육과 법도의 인도를 통한 인격 수양을 강조한다. 사람의 선천적 인성은 악하지만, 스승의 법도에 의한 교화가 있다면 친사회적인 인성이 길러질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나)의 맹자는 각 개인의 마음가짐과 노력을 통해 인격을 수양할 수 있다고 한다. 실천 의지만 있다면 누구나 훌륭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두 사상가의 말씀을 통해 (다)에 나타난 봉사활동이 갖는 의미를 엿볼 수 있다. 봉사활동은 인성교육을 보완하기 위해 시행되었으나, 현재는 학생들에게 진학을 위한 도구로써만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순자는 인간의 악한 본성으로 봉사의 의미가 퇴색되어 운영될 수 있지만, 봉사 관련된 교육과 제도의 보완을 통해 학생들은 봉사의 진정성을 깨닫게 될 것이라 논할 것이다. 또한 맹자는 학생들이 올바른 봉사를 위해 마음을 먹고, 노력을 다한다면 훌륭한 봉사자로 성장할 수 있을 거라 논할 것이다.

[대학 문항해설]

- 이 문항은 인간의 본성에 관한 대표적인 동양 성인들의 성찰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와 현실적 문제에 대한 응용력을 요구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시문 (가)에서는 인간의 본성이 본디 악하다는 전제 하에 후천적인 훈육에 의해 선하게 바뀔 수 있다는 이론을 개진하고 있다.
 - 제시문 (나)는 맹자의 인성론이 피력되고 있지만, 전형적인 성선설이 아니라 (가)와 마찬가지로 후천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점을 수험생이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특징이 있다.
 - 제시문 (다)는 학생기자가 작성한 기사로, 고등학교 학생의 시선에서 그들의 관심사인 봉사활동이 지닌 가치와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다.
- 제시문 (가)와 (나)에서 제시된 인성론에 대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하고, 이를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학생들의 봉사활동 의무화의 적절성에 대한 이해의 정도를 평가하는 문항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텍스트 분석력과 함께 현실적인 문제에 활용할 수 있는 문제해결력을 동시에 평가하고자 하는 문항이다.

[대학 채점기준]

- (1) 제시문 (가)와 (나)는 각각 <순자>와 <맹자>에서 인용된 지문이다. 지문에 대한 이해력이 현저히 부족한 답안은, <맹자>에서 인용되었으니 성선설이 피력되었다고 서술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선입견에 기반한 답안은 2~3등급 감점.
- (2) 제시문 (가)와 (나)는 공통적으로 결정론을 부정하며, 후천적으로 인격이 변화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답안은 1~2등급 감점.
- (3) 제시문 (가)는 교육과 법도라는 사회적인 시스템을 강조하지만, 제시문 (나)는 개인의 실천적인 노력을 강조한다는 차이가 있다. 이를 간과한 답안은 1~2등급 감점.
- (4) 제시문 (다)에서 제시하고 있는 학생 봉사활동 의무화의 목적과 문제점에 대해, 제시문 (가)와 (나)의 핵심적인 견해를 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한 답안은 1~2등급 감점.

	제시문 (가)	제시문 (나)
공통점	결정론 비판, 인격 함양 가능성 지지	
차이점	교육과 법도를 통한 교화 강조, 사회 시스템 강조	실천 강조, 개인의 노력 강조

[대학 예시답안] 585자

제시문 (가)와 (나)는 인격 함양과 관련된 순자와 맹자의 사상을 서술하고 있다. (가)에서 순자는, 인간의 본성은 본디 악하지만 인위적인 노력으로 선한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성악설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인격 함양을 위한 교육과 법도를 강조한다. (나)에서 맹자는 사람은 마음먹기에 따라 누구나 요순처럼 될 수 있다고 하면서 실천 그 자체를 강조한다. 두 제시문의 공통점은 개인이나 사회의 노력에 따라 인격이 함양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제시문 (다)는 학생들의 봉사활동을 다루고 있다. 봉사활동은 인성교육을 목표로 2000년부터 교육과정에 정착되었다.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학생들의 봉사활동이 상급학교 진학의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 순자의 견해에 따르면 봉사활동 의무화는 학생들의 교화를 위한 바람직한 정책이나, 단지 진학 수단에만 머문다면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어렵게 된다. 따라서 본연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교육제도 등 관리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편 맹자에 따르면 봉사활동 자체도 가치가 없지 않지만, 인격 함양이 되기 위해서는 봉사의 의미를 인식하면서 진정한 봉사가 될 수 있도록 학생 스스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에필로그]

인간의 본성은 선할까? 악할까? 아니면 ‘하얀 종이’처럼 후천적 경험에 의해 채색되는 걸까? 여기에 대해 그동안 수많은 사상가들이 다양한 대답을 내놓았지만, 여태 무엇이 정답이라고 확정된 적이 없는 만큼, 인간의 본성이란 참으로 오묘한 주제인 것 같아. 심리학 실험들에 따르면, 아직 사회화를 제대로 시작하지 않은 아기들은 친사회적인 대상들에 대해 더욱 높은 호감을 보였다는 논의도 있고, 그 반대를 입증하는 사례도 물론 있지.

인간의 본성과 같은 이런 주제를 만나면, 썸은 나의 내면의 기억을 되짚어서 답을 내려고 고민해 보곤 했어. 나는 원래 선한 사람이었나. 아니면 그렇지 못했나. 이와 관련해 썸이 내린 결론은 엘리자베스 퀴블러로스라는 선생님이 쓰신 <인생수업>에 잘 나타나 있는데, 사람이란 결국 사랑받고 싶은데, 그렇지 못할까봐 두려워하는 존재라는 거야. 그 두려움에서 경계가 생기고, 그 경계의 미숙함이 여러 문제를 낳게 된다고 하시더라고. 썸은 그 설명이 많이 와닿더라고. 나도 그런 생각이 들어. 내가 정말로 원하는 건, 그저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일 텐데, 이걸 못 할까봐 이러저러한 수많은 규칙들 속에서 노력하고 있는 건 아닐까. 서툴지만 미워할 수 없는 우리의 진짜 진심을 서로가 알아볼 수만 있다면, 훨씬 더 따뜻한 세상이 되진 않을까. :)